

## 건축열정이 한국 건축의 새바람으로 승화되길...

### Architectural Passion as Catalyst for a New Wave of Korean Architecture

김윤기 / 건설교통부장관  
 by Kim Yoon-Gee



존경하는 이의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천년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장기간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건축계도 국가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이제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웠던 시기를 건축사 여러분과 건  
 축인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는 안심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적지 않은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  
 범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건축  
 사 자격제도의 선진화가 요구되며, 국내적으로도, 주택 보급률 증가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건축수요증가는 더 이  
 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축시장의 변모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우리 건  
 축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장래가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인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에 맞춰 건축사 여러분의 역량이 십분 발  
 휘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그간 건축사 여러분의 기여와 노고에 힘입어 수많은 아파트와 건축물들이 설계되어 주택보급확대  
 와 도시화 진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건축의 질적 발전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수요의 다양화·고급화·첨단화 추세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본  
 격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부조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축인 모두가 합심하여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와 지식이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건축은 인간의 창작력과 기술의 조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풍  
 요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문화지식산업으로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상 진전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축교육학제 변경, 응시자격 조정 등 건축사 자격제도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  
 분간 건축사 여러분께 혼란과 어려움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단일시장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설계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시장에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 나아가 건축계 전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 건축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여러분을 도와 한국건축의 선진화  
 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이제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흥분과 기대만큼이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시대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서 나간다면 보다 큰 결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껏 건축사 여러분이 일구어낸 많은 일들과 그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한국건축의 새바람으로 승화되길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